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전래경위와 가치

Details of Transmission and Value of the Book *Geunsarokjiphae*
Owend by Toegye Yiwhang

우진웅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4.2 장서인 |
| 2. 『근사록집해』의 편찬과 간행 | 4.3 기타 문헌에서의 전래 기록 |
| 3. 퇴계 수택본의 서지적 특징 | 5. 가 치 |
| 4. 전래 과정 | 6. 결 언 |
| 4.1 목서 기록 | <참고문헌> |

< 초 록 >

『근사록』의 주석서로 1248년에 편찬된 『근사록집해』는 고려 말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래되어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었다.

본고에서 다룬 『근사록집해』는 1370년 경남 진주에서 진주목사 이인민에 의해 원판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목판본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700)이 1533년 남행할 때 경남 의령에서 장인인 허찬에게 받아 간직해 온 수택본이다. 퇴계는 이 책을 둘째 손자인 이순도에게 선사하였고, 이후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고, 책 내에 표기된 기록과 이 책에 대해 언급한 여러 문헌의 기록에 의거하여 전래 과정과 그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要語: 퇴계, 퇴계선생, 이황, 근사록, 근사록집해, 이인민, 원판

* 한국국학진흥원 전인연구원(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6년 3월 2일 최초심사일: 2016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25일

<ABSTRACT>

The book 『*Geunsarokjiphae* (近思錄集解)』 is commentary edition of 『*Geunsarok* (近思錄)』 was compiled in 1248. The book has many editions between Goryo and Chosun Dynasty. The book dealt with in the study, is the edition of 1370 which was published by Governor of Jinju(晋州) province Yi-Inmin(李仁敏). This book was also Toegye(退溪) Yiwhang(李滉)'s ownership, the book 『*Geunsarokjiphae* (近思錄集解)』 was also given by Huh Chan(許瓚) who was his father-in-law in the year of 1533. Toegye(退溪) gave the book 『*Geunsarokjiphae*』 to his second grandson Yi Soondo(李純道), and the book handed down to his posterity. In this study, we consequentially tried to analyze bibliographical feature, the details of transmission, the analysis of the record written in the book and the value of the books so forth.

Key words: Toegye, Yi-whang, *Geunsarok*, *Geunsarokjiphae*, Yi-Inmin,
The edition of Xia Dynasty

1. 서 언

『근사록』은 宋 朱熹와 呂祖謙이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의 어록 중에서 주요 부분을 골라 1175년에 편찬한 성리학의 해설서이다. 『심경』, 『소학』과 함께 유학자들의 필독서였다. 『근사록』의 편찬 이후 중국에서는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특히 葉采가 30여 년 동안 연구하여 1248년에 편찬한 『近思錄集解』는 『근사록』의 내용을 모두 註解한 최초의 주석서이자 완전한 주석서로 평가되어 성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말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근사록』은 대부분이 『근사록집해』였으며 이에 따라 『근사록집해』는 고려말과 조선시대에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현전하는 『근사록집해』¹⁾의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는 1370년에 당시 진주목사였던 이인민에 의해 진주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이 진주판 『근사록집해』는 일부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활자본으로는 초주갑인자와 무신자, 정유자 등으로 인출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목판본 역시 이들 활자본을 복각한 계열의 판본들이다.

본고에서는 『근사록집해』의 여러 판본 중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14권 3책으로 구성된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분석하고 전래과정과 그 가치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이 책은 1370년 진주목 간행 판본으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570)이 간직한 수택본으로 책 내에는 이를 입증하는 책의 전래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그 후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아 흐트러짐 없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의미있는 책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근사록집해』의 대체적인 간행 양상을 살펴보고, 퇴계 수택본의 서지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찰함과 동시에 책 내에 표기된 기록과 이 책에 대한 전래, 소유, 어람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여러 고문헌에 의거하여 전래 과정과 그 가치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1) 일부 선행연구에서 서명을 『근사록』 내지는 『근사록』 집해본 등으로 하였으나 여기서는 주희의 『근사록』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근사록집해』라고 하였다.

2. 『근사록집해』의 편찬과 간행

『근사록』은 宋 1175年(孝宗 2) 呂祖謙이 한천정사에 머물고 있는 朱熹를 방문했을 때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약 1년 정도 후인 1176년에 완성되었다. 당시 성리학을 이끌고 있던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등의 저술을 읽고 ‘近思’에 부합한 글을 채택하여 주자학을 배우는 신진학자들을 위한 입문서로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하였다.

‘近思’라는 명칭은 『論語』의 <子張>편에 나오는 구절인 “넓게 배우며 뜻을 독실하게 하여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일에서 생각하면 仁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에서 인용된 말이다.

『근사록』은 두 사람이 共編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朱子が 주재하여 송대 성리학의 중심이 된 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등 4명의 명현들의 어록과 문집에서 정수가 되는 것을 가려 주자학 및 사서 입문서로 활용하도록 한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²⁾

주자는 『근사록』의 앞에 붙인 서문에서 “淳熙 乙未年(1175) 여름에 東萊 呂祖謙(1137-1181)이 東陽을 떠나 내가 있는 寒泉精舍에서 열흘 동안 머물렀다. 그와 함께 周子, 程子, 張子의 글을 읽고 그들의 학문이 끝없이 광대하고 광박한 것임을 감탄한 한편 초학자들이 들어갈 곳을 모르게 될까 걱정하였다. 그래서 학문의 대강령과 관련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선택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하였다. 즉 송나라 1175년에 여조검은 浙江을 지나 福建에 이르러 주희를 만났고, 두 사람은 寒泉精舍에서 周敦頤(1017-1073), 張載(1020-1077), 程顥(1032-1085), 程頤(1033-1107) 등의 저작들을 읽고 연구하였다. 또 북송의 여러 학파가 학문을 논하는 글과 어록들을 정선하여 편집하고 책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³⁾

2) 강순애, “初鑄甲寅字本 『近思錄』과 관련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한국서지학회)』 제24집(2002), 165.

3) 옥영정, “동빈문고의 중국번각본과 그 가치,” 『민족문화논총(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제51집(2012), 141.

주희와 여조검에 의해 『근사록』이 1175년에 편찬된 이후 중국에서는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그 중 특히 葉采가 집해한 『근사록집해』는 『근사록』의 내용을 모두 주해한 최초의 주석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전래되어 성리학의 기본서로 보급되었다.

섭채의 『근사록집해』는 『근사록』이 편찬된 지 73년 후인 1248년에 편찬되었다. 1248년에 섭채가 쓴 『근사록집해』의 서문에는 “책(『近思錄』)을 15세에 받아 글자마다 뜻을 구하고 문장의 의미를 연구하며 오랫동안 생각하여 集解를 이루게 되었다. 要와 綱은 모두 주자선생의 옛 註를 근본으로 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섭채는 1248년에 『근사록집해』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252년에 간행을 완료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서문에 이어 수록된 1252년에 섭채가 『근사록집해』를 완성하여 임금(理宗, 1225-1264 재위)에게 올린 <進近思錄表>에는 “처음 이 책을 志學에게 얻어 師友들의 기록을 참고하여 문장의 요체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대강의 요지는 朱子를 근본으로 하면서 여러 학설을 선택하였고 빠진 글이 있으면 본인의 설을 추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임금은 集解가 다 되었는지 물어보고 빼여서 관청에 보내라고 하여 왕명에 의해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희의 『근사록』은 14권 622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권별로 편명을 보면 권1은 ‘道體’, 권2는 ‘爲學之要’(또는 ‘爲學’), 권3은 ‘致知’, 권4는 ‘存養’, 권5는 ‘克己’, 권6은 ‘家道’, 권7은 ‘出處’, 권8은 ‘治國平天下之道’(또는 ‘治體’), 권9는 ‘制度’(또는 ‘治法’), 권10은 ‘君子處事之方’(또는 ‘政事’), 권11은 ‘教學之道’(또는 ‘教學’), 권12는 ‘改過及人心疵病’(또는 ‘警戒’), 권13은 ‘異端之學’(辨異端), 권14는 ‘聖賢氣象’(또는 ‘觀聖賢’)이다.

이들 각권의 편명은 별도로 정해져 일정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 학자들이 일컬어서 정립된 것이다. 책 내에서는 따로 편명을 달지 않았고 註를 달아 편명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근사록집해』는 판종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금속

활자본이 6종, 목판본이 12종으로 조사되었다.⁴⁾

<표 1> 『근사록집해』의 판본

금속활자본	목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初鑄甲寅字本 - 1436년 ■ 初鑄甲寅字混入補字本 - 內賜 [1519년] ■ 戊申字本 - 金聲久 內賜 [1672년] ■ 戊申字混入補字本(1765년) ■ 壬辰字本(18세기) ■ 丁酉字混入補字本(18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元版覆刻本 - 晋州(1370년) ■ 初鑄甲寅字覆刻本系 - 鳳城精舍(1519년 간행), - 平安道 中和 淸涼書院(1566년 간행), - 禮山縣(1578년 발문), - 密陽 估畢書院(1581년 간행) ■ 戊申字覆刻本系 - 戶曹判書 李敏敏 內賜(1687년) - 奉化 三溪書院(1826년) ■ 慶州 玉山書院[18세기] ■ 成川府 [18世紀] ■ 기타 - 咸南 文川[16세기] - 기타 [16세기], [17세기] 각 1종

『근사록집해』의 인출은 부분적으로 목판의 간행이 있었지만 주로 초주갑인자 계열의 활자본, 이의 번각본, 번각의 후쇄본 등이 선조연간까지 주로 사용되었다. 1672년경(현종 13)에 무신자로 간행되어 영조조까지 유통되었고, 영조, 정조, 순조조에는 무신자본이 번각되어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다.⁵⁾

목판본으로는 1370년 元版을 복각하여 진주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고, 기타 갑인자와 갑인자 계열의 여러 활자본을 복각한 계열의 판본이 목판본의 주를 이루고 있다.

활자본으로는 초주갑인자본(1436), 초주갑인자혼입보자본(1519), 무신자본(1672), 무신자혼입보자본(1765), 임진자본(18세기), 정유자혼입보자본(18세기) 등이 인

4) 우정훈, 송일기, “葉採의 『近思錄』集解本 板本考,” 『서지학보』 제36집(2010), 235.

5) 강순애(2002), 169.

출되었다. 초주갑인자를 복각한 계열로 鳳城精舍(1519), 平安道 中和 清涼書院(1566), 禮山縣(1578년경), 密陽 佔畢書院(1581)에서 간행되었으며, 무신자를 복각한 계열로 奉化 三溪書院(1826) 등에서 간행되었다. 기타 경주 옥산서원에서 독자적으로 간행되었다.

3. 퇴계 수택본의 서지적 특징

본 『근사록집해』는 퇴계 이황의 둘째 손자인 李純道(1554-1584)의 후손가에 서 수백년 동안 잘 보관되어 전해 내려오던 것을 2014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책이다.

1370년(공민왕 19)에 진주목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현전 『근사록집해』의 판본 중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이다. 본서 외에 5종 내외의 동일 판본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본 『근사록집해』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져 있으며 책의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편이다.

14권 3책의 전질로 전해 내려오는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각 책별 권차는 제1책은 권1-3, 제2책은 권4-8, 제3책은 권9-14로 구성되었다. 이 책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3책이 딱 들어갈 정도로 제작된 책함이 갖추어져 있다. 책함의 규격은 가로 18.0cm, 세로 28.0cm, 높이 8.0cm 정도이며, 재질은 오동나무이다.

책함을 개폐하는 부분에는 ‘近思錄’이라는 서명이 음각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도 집안에서 소중하게 보관하여 내려왔음이 짐작된다.

책의 크기는 3책 모두 세로 25.8cm, 가로 14.8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며, 짙은 갈색의 표지를 이용하여 오침안정법의 線裝으로 장정하였다. 각 책마다 표지에는 題籤이 있으며 제첩에는 ‘近思錄’의 서명과 해당 卷次가 표기되어 있다.



<그림 1>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

판식은 邊欄은 左右雙邊이고, 반곽의 크기는 17.0×11.1cm(권1 기준) 정도이다. 계선이 있으며 한 면은 8行 18字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다. 판심은 上下黑口로 되어 있으며 魚尾는 상하 모두 下向黑魚尾이다. 전형적인 원판본의 형식이다.

서명과 권차 아래에는 각 권별 條의 수, 그리고 편명 없이 각 편을 설명하는 내용을 주쌍행으로 기록하였다.

제1책은 1176년 섭재가 지은 <近思錄集解序>, 그 다음에는 일종의 引用書目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集解目錄>⁶⁾이라 하여 『근사록집해』의 인용서목, 뒤에는 『근사록』의 인용서목⁷⁾이 수록되었다. 이어 朱熹와 呂祖謙이 지은 『근사록』의 서문, 1252년에 섭재가 올린 <進近思錄表>와 본문으로 이어진다. 본문이 끝나면 권말에 간기와 발문, 간행에 참여한 인원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모두 3책의 권차는 14권으로 이어지며 14권의 본문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는 간행과

6) 紫陽先生朱文公, 南軒先生張宣公, 東萊先生呂成公, 勉齋先生黃文肅公, 節齋先生蔡氏, 果齋先生李氏.

7) 周子太極通書, 明道先生文集, 伊川先生文集, 周易程氏傳, 程氏經說, 程氏遺書, 程氏外書, 橫渠先生正蒙, 橫渠先生文集, 橫渠先生易說, 橫渠先生禮樂說, 橫渠先生論語說, 橫渠先生孟子說, 橫渠先生語錄.

관련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발문의 앞에는 篆書로 ‘星山李氏刊于晉陽’으로 된 패기와 좌측에는 상하로 鐘形과 鼎形의 패기 안에 ‘洪武三年’, ‘李魯叔’의 木記가 새겨져 있어 이노숙⁸⁾에 의해 1370년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권말에 수록된 간행과 관련된 사실로는 ‘庚戌己丑朔星山李魯淑識’라 기록된 발문이 있다. 이 발문에 의하면 이인민은 평소애 聖學의 始終을 모두 갖춘 이 책을 구하여 갖고 싶었으나 구하지 못하다가 진주목사로 부임할 때 司藝 朴尙衷(1332-1375)이 『근사록』 한 부를 전해주면서 간행하기를 부탁하였는데 이 책은 당시 金廣遠이라는 자가 소장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진주목사인 이인민은 기쁘게 여기며 張躋에게 글을 쓰게 하고 工人에게 명하여 새기도록 하였으며 按部朝列 郭儀⁹⁾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판각하여 간행을 끝마쳤다고 하였다.¹⁰⁾

권말에 표기된 간행 관련자 명단으로 이인민의 총괄 아래 鄭翼吾가 교정하고 戒松, 戒桓 2명이 각수로 참여하였다.¹¹⁾

8) ‘魯叔’은 李仁敏(1330-1393, 본관 星山)의 자이다. 호는 慕隱이다. 그는 일찍이 음직으로 벼슬에 올라 선덕랑 등을 지내다가 1360년(공민왕 9)에 문과급제하여 1370년(恭愍王 19)에 晉州牧使를 지냈다.

9) 『高麗史』 第132卷 <列傳> 第45, 叛逆6, 辛晫條에는 “玄風人 郭儀는 매번 명절 때에는 술과 찬을 준비해서 靈山으로 가서 辛晫의 아버지 묘에 제사를 지냈는데 신돈은 평소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니 그를 불러다가 곧 正言의 벼슬을 주었다”(玄風人 郭儀每遇節備酒饌往靈山奠晫父墳令守者達晫晫以素不相識驚喜召之尋除正言)는 郭儀 관련 기록이 있다.

10) 是書諸儒極論學問思辨之功 具衆理而聖學終始備矣 予嘗永之而未獲焉 逮庚戌春分 符晉陽司藝朴先生尙衷祖行 而因出一部 以囑刊行 是大常金公廣遠之所藏也 幸其斯得 嘉其所囑 與半刺金公張君躋書記 命工鋅梓 又資按部郭朝列儀以訖其功 其於 聖門造道之徑 升堂之階 不外乎是 志學之士庶幾勉旃 以副壽傳之意 庚戌己丑朔 星山魯叔 謹識.

11) 中正大夫晉州牧使兼管內勸農防禦使 李仁敏, 朝奉郎晉州牧使判官兼勸農防禦使 賜紫金魚袋 金子贊, 校正成生 鄭翼吾, 鄉貢進士 鄭思吾, 色戶長正朝 河乙澤, 板刻 道人 戒松道人 戒桓.



星山李氏 / 刊于晉陽



洪武三年(上) / 李魯叔(下)



<그림 2> 권말 간기와 간행참여명단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전래경위와 가치

본 『근사록집해』와 동일한 판본으로 충재유물관 소장본(14권 4책, 보물 제262호), 숙명여대 소장본(영본 2책, 보물 제1077호)이 있으며 기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영남대 도서관에도 일부가 전해지고 있다.

충재유물관 소장본은 冲齋 權穰(1478-1548)의 수택본이다. 이 책에 대한 일화는 유명하여 실록 등 여러 문헌에 전해진다. 충재 권벌은 『근사록집해』를 애독하며 늘 소매에 넣어 다녔는데 1540년(중종 35)에 慶會樓에서 賞花宴을 베풀 때 이 책을 떨어뜨려 분실하였다. 잔치 후에 임금은 책을 습득한 신하에게 권벌의 것이라 하고 책을 돌려주었다. 200여년 후인 1746년(英祖 22)에 이 유래를 알고 있던 英祖는 권벌의 후손 兵曹佐郎 權萬에게 부탁하여 이 책을 가져와서 열람하기를 청하였고, 正祖는 이 책을 보고 1798년(正祖 18)에 <御製忠定公權穰袖珍近思錄序>의 어제서문을 특별히 지어 徐榮輔에게 글씨를 쓰게 하고 ‘奎章之寶’를 찍어서 후손에게 돌려주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기타 완질을 갖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기 고조 16-84)이 있으며, 규장각본(고귀 1344-20)은 영본 3책으로 권3-5, 권6-9, 권10-14가 소장되어 있다. 숙명여대 소장본은 영본 2책으로 권1-3, 권9-14가 소장되어 있다.

<표 2> 진주판 『근사록집해』 현전본

구분	책 구성	형태사항
퇴계본	14권 3책(권1-3, 권4-8, 권9-14)	左右雙邊, 半郭 17.0×11.1, 有界, 上下下向黑魚尾, 25.8×14.8
충재본 (보물262호)	14권 4책(권1-2), (권3-5), (권6-9), 4책(권10-14)	左右雙邊, 半郭 18.1×11.7, 有界, 8行 18字, 上下下向黑魚尾, 22.7×15.7
국중본	14권 4책(권1-2), (권3-5), (권6-9), 4책(권10-14)	左右雙邊, 半郭 17.7×10.9, 有界, 8行 18字, 上下下向黑魚尾, 21.6×13.8
숙대본 (보물1077호)	영본 2책(권1-3), (권9-14)	左右雙邊, 半郭 17.7×11.0, 有界, 8行 18字, 上下下向黑魚尾, 25.7×14.3
규장각본	영본 3책(권3-5), (권6-9), (권10-14)	左右雙邊, 半郭 17.5×11.0, 有界, 8行 18字, 上下下向黑魚尾, 24.3×14.0

이 중 숙명여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의 판본은 여말 선초사이의 후인으로 여겨진다.¹²⁾

12) 강순애(2002), 169-170.

영남대 동빈문고 소장본은 권10과 권14의 일부(권10은 9장, 권14는 5장)만 남아있다. 권10은 제1장에서 13장까지, 권14는 본문의 제 6장부터 15장이 결락되었으며, 마지막의 이인민의 지문과 간기도 결락되었다.¹³⁾

충재본과 영남대본은 인면의 상태로 보아 1370년 당대에 인출된 초간본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계 수택본은 충재본과 영남대 소장본에 비해 인면의 상태가 뚜렷하지 않고 찍힌 글자의 상태 등으로 볼 때 초인은 아니며 여말선초에 후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퇴계본(左)과 충재본(右)의 권수와 간기 부분

4. 전래 과정

4.1 목서 기록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에는 이 책의 전래 경위와 과정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록이 있다.

전해지고 있는 3책 중 제1책의 후표지 이면에는 “계사년 중춘에 허수옹이 이계호에게 주다(嘉靖十二年癸巳仲春既望 許壽翁 贈 李季浩)”라는 문장이 목

13) 옥영정(2012), 141.

서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4> 受贈記(제1책 후표지 이면)

이것은 1533년(중종 28) 許氏라는 늙은이가 이계호에게 이 책을 증정하였다는 사실을 적은 受贈記이다. 李季浩는 퇴계(1501-1570)의 初字이다.¹⁴⁾ 즉, 퇴계 이황이 33세 때인 1533년에 許壽翁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문서에 표기된 간지인 계사년, 1533년의 퇴계의 행력과 이 책을 준 허수옹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고증해보기로 하겠다.

4.1.1 1533년 퇴계의 발자취

『퇴계선생연보』에 실린 퇴계의 1532-1533년(壬辰-癸巳)의 행력을 보면, 1532년 사마시 합격 후 과거에 별 뜻이 없었으나 형 大憲公¹⁵⁾이 모친에게 여쭙고 과거를

14) 후에 景浩로 바뀌었다.

권하여 다시 과거에 나가게 되었다. 이후 文科別試의 初試에 2등으로 입격하였다. 과거 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村舍에서 자다가 밤에 도둑이 들었는데 일행들은 모두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선생은 태연히 앉아서 동요하지 않았다¹⁶⁾고 한다.

1533년에는 泮弓(성균관)에 유학하니 동료들이 모두 존경하고 선생을 공경하며 따랐으며, 가을에 忠定公 權檣을 따라 고향으로 가면서 여주를 지나가는 길에 여주 梨湖村에 살고 있는 慕齋 金先生¹⁷⁾을 만났으며, 경상도 향시에 응시해서 1위로 입격하였다¹⁸⁾는 기록이 있다.

연보에 실린 위와 같이 잘 알려진 기록 이외에 퇴계는 1532년 당시 昆陽郡守였던 灌圃 魚得江(1470-1550)의 초청을 받아 1533년 봄에 남행하였다.¹⁹⁾ 그리하여 1533년 4월 상순에 남행을 끝내고 이어 그 달 20일경에 從弟 壽峇, 兄 溫溪 李滄(1496-1550)를 따라 상경해서 성균관에 遊學하였다. 그러나 浮簿한 士翫과 太學이 학문하는 곳이 아님을 보고 3개월 내에 泮宮 등의 여러 시를 읊고 7월 상순에 귀가하였다.²⁰⁾

이렇듯 퇴계는 1532년 겨울에 곤양군수였던 어득강의 초청 편지를 받고 1533년 남행하였으며 여름에 성균관에 재차 유학을 하고 『서행록』을 지었다. 그리고 남행 당시에 지은 109수를 ‘南行錄’, 서행시에 지은 39수를 ‘西行錄’이라 하였다. 이러한 계사년 기행 기록은 『서행록』의 일부인 1533년 7월 12일에 쓴 <夢中得一

15) 溫溪 李滄(1496-1550).

16) 『退溪先生年譜』 11年 壬辰 32世條.

“先生自中司馬試 無意舉業 兄大憲公白母夫人勸之赴舉 是年 文科別舉初試居第二 自京還鄉 宿路邊村舍 夜中遇盜 同行驚惶失措 而先生凝然不動.”

17) 金安國(1478-1543).

18) 『退溪先生年譜』 12年 癸巳 33世條.

“遊泮宮 流輩多敬服 秋下鄉 道經驪州 見慕齋金先生 是行 隨權忠定公檣同行 慕齋名安國 時罷官居驪州梨湖村 先生晚年。自言見慕齋 始聞正人君子之論 赴慶尙道鄉舉 居第一.”

19) 『陶山全書』 遺集 卷2 外編 <寄魚灌圃>.

“憶我去年冬 再拜得公書 開緘長跪讀 公書 招我遠遊勿懷居 新春作意向南行 千里宜春來駐驢 昆山相望不可見 ….”

20) 權五鳳, “『癸巳南行錄』이 갖는 退溪의 평생사적 의의,” 『퇴계학연구』 제5집(1991), 44.

聯覺而足之>라는 시 1수와 7월 13일에 쓴 并序, 後跋을 통해 남행과 서행 당시 지은 시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²¹⁾

계사년 『남행록』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아 퇴계의 1533년의 정확한 남행 일정과 과정, 『癸巳錄』의 구성 체제 등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1869년 퇴계의 후손 李彙溥, 李彙載, 李晩浩, 李晩翬 등 유생 40여 명이 『주자대전』의 체제에 따라 97권 75책²²⁾의 『도산전서』를 편찬하여 도산서원 광명실 등 몇 군데에서 소장해 왔다. 그 중 원본의 형태로 전해내려오던 것(번남본)을 1980년에 한국국신문화연구원에서 『도산전서』로 간인하여 계사년(1533)의 남행 기록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도산전서』에 수록된 유집 중 『남행록』은 퇴계의 나이 33세 때인 1533년(계사년)에 어득강의 초청을 받고 성주, 함안, 의령, 창원, 사천, 곤양 등의 지역을 여행하거나 인물을 방문하면서 기록한 시이다.

여기에 실린 남행 당시의 기록이 한 곳에 모아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문집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수록되어 있었으나 1533년에 퇴계의 발자취를 찾아 『퇴계문집』이나 속집, 도산전서의 유집 등을 근거로 하여 퇴계의 남행시에 읊었던 109수의 시들을 재편집하여 『계사남행록』이 소개되기도 하였다.²³⁾

퇴계의 평생사에 있어서 계사년은 그의 문학적인 위치, 입지, 출신, 평생지원을 장차 실현하고자 결단을 내린 중요한 시기였으나 연보에는 33세 때의 남행 기록이 전부 빠져 있고, 시 109수 중 문집의 내집에는 단 3수만이 실려 있다. 그밖에 간인된 별집과 속집에 26수, 필사본인 유집에 47수, 逸詩 목록에 약 16수가 있고 나머지 17수는 시제마저도 알 수 없었다. 특히 남행록의 여러 詩注와 序跋은 서행록 시의 후발과 함께 퇴계의 臥遊와 더불어 계사년의 행력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문집에 수집되지 못하였고, 연보에도 실리

21) 『陶山全書』 遺集 <夢中得一聯覺而足之>.

“癸巳秋七月 余東萊杜閑居 十二日夜夢 … (中略) … 右南行錄 一百九首 西行錄 三十九首 并一百四十八首 余平生不工詩 顧賞嗜之 凡寓目感懷 ….”

22) 原集 66卷 49冊, 外集 1卷 1冊, 別集 2卷 2冊, 續集 8卷 6冊, 遺集 20卷 17冊.

23) 權五鳳(1991), 44, “『癸巳南行錄』이 갖는 退溪의 평생사적 의의.”

지 않아서 급제 출사 직전인 33세의 생활과 사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간인이 되지 않았던 까닭은 문집을 편집할 때 편찬자의 의식에는 퇴계가 젊었을 때 읊은 시는 장년기와 노년기에 읊은 시들에 비하여 도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덜 원숙하다고 인식하였고, 또한 시의 양이 많아 모두를 신지 못하고 選擢을 하면서 만년의 시에 무게를 더 두어서 편집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²⁴⁾

다음은 1533년 퇴계의 계사년 남행 당시 방문 일정을 정리한 표이다.²⁵⁾

퇴계는 32세인 1532년 겨울에 곤양군수 관포 어득강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다.

<표 3> 『계사남행록』에 의거한 1533년 퇴계의 이동과 詩題

월일	이동 및 지역	詩題
1.27-28	남행을 시작하다	
1.29	예천(襄陽)	〈二十九日讓陽道中〉
1.30-31	상주 낙동	〈登尙州觀水樓〉〈晦日登觀水樓〉
2.1	선산(鳳溪里)	〈過吉先生閭〉
2.3	성주 伽川, 가야산	〈三日渡伽川〉〈星州馬上吟〉〈望伽椰山〉
2.4	합천 南亭	〈陝川南亭韻〉〈南亭次許公簡韻〉
2.5-10	의령 嘉禮 白巖村 (妻家)	〈宜寧寓宅東軒韻〉〈梅花詩〉
2.11-13	의령 丹岩津, 함안 茅谷(從姊兄家)	〈十一日渡丹岩津〉〈吳宜寧公三友臺〉〈前宜寧吳公竹齋〉〈宿仁遠書齋〉〈茅谷吳宜寧公竹齋〉
2.14	창원 檜山(從姊兄家)	〈檜山曹敬仲壽母生辰次敬仲韻〉
2.15	창원 月影臺, 창원 檜山	〈仲春望日與吳仁遠曹敬仲陪宜寧 查丈吳碩福 遊 月影臺〉〈月影臺〉〈日暮自臺前舟抵檜原〉〈次吳宜寧記遊韻〉
2.16	함안 茅谷	〈十六日吳宜寧竹齋對 月小酌〉
2.17-3.2	의령 嘉禮 白巖村	〈白巖東軒濯纓金公韻〉〈吳仁遠將之安陰過宿于白巖〉〈仁遠還自安陰〉
3.3-3.17	의령 嘉禮 閣岫山, 의령 嘉禮 白巖村	〈三月三日出遊〉〈白巖新東軒臨池小作〉〈贈余國珵(并序)〉〈送山人惠忠〉〈次韻友人見贈〉〈樓上醉吟〉〈東軒池上雨〉
3.18	함안 茅谷	〈十八日茅谷次吳宜寧韻〉

24) 權五鳳(1991), 29-32.

25) 『癸巳南行錄』이 갖는 退溪의 평생사적 의의(권오봉, 『퇴계학연구』 제5집(1991), 58-61), 남행록 소개 퇴계 기행시의 특징과 의미(조유영, 『동방학』 제32집(2015), 190-191)의 논문을 참고함.

월일	이동 및 지역	詩題
3.20-21	창원 檜山, 舞鶴山	〈二十日曹敬仲齋舍與仁遠諸人待金綏之書懷〉〈是日綏之來齊浦期明日會于此綏之竟不至〉〈是日與仁遠敬仲誠仲散步至鼻巖〉〈鼻巖示同遊〉〈二十一日次仁遠〉
3.26-28	진주 靑谷寺, 진주 月牙山 月牙山 法輪寺 진주 矗石樓	〈過靑谷寺〉〈三月二十六日訪姜晦叔奎奎之同寓法輪寺路上作〉〈到法輪寺晦叔奎之皆不在是夜獨宿西窓雨竹蕭蕭絕有清致悵然賦此〉〈明日晦叔奎之鄭紀南皆來會同宿又明日與晦叔偕向昆陽別奎之紀南兩同年〉〈矗石樓〉
3말-4초	곤양 곤양 鵠島, 浣沙溪	〈昆陽次魚觀浦得江東州道院十六絕〉〈昆陽陪魚觀浦遊鵠島是日論潮汐〉〈鵠島次安法書韻〉〈次鄭舍人遊山後贈同遊韻〉〈浣沙溪錢席〉
4초	의령 嘉禮 白巖村 성주 安彦驛	〈次吳宜寧見寄〉〈宿安彦驛曉次板上韻〉〈寄魚觀浦〉

<표 3>과 같이 퇴계는 1533년 봄에 남행하면서 안동과 예천, 상주, 선산, 성주, 합천, 의령, 창원, 진주 등을 유람하였으며, 이 과정 중 많은 지역의 인물들과 교류하면서 시를 읊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의령을 많이 방문하였다. 가장 많이 방문한 의령 가례의 백암촌은 불과 수년 전에 들췌를 낳고 세상을 떠난 퇴계의 첫째 부인인 허씨부인의 고향이자 처가가 있는 곳이었다. 또한 장인 허찬이 당시 거거했던 곳이었다. 퇴계는 이곳에서 많은 일정을 보냈다. 적어도 1개월 이상은 의령의 처가를 비롯한 의령의 다른 곳에서 지냈음을 알 수 있다.

4.1.2 의령 백암촌의 형성과 허찬

의령 백암촌은 김해허씨의 집성촌이다. 김해허씨의 시조는 김수로왕의 황후인許黃玉이며, 허황옥의 35세손 許琰이 김해허씨의 중시조가 되었다. 허염은 고려文宗代에 三重大匡이었으며 駕洛君에 봉해지고 김해를 食邑으로 하여 머물렀다.

허염의 현손 許有全(1243-1323)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 시호는 忠穆이다. 1314년(충숙왕 1)에 駕洛君에 봉해지고, 1321년 문하시중이 되었다.

허유전의 손자 許麒의 호는 湖隱, 시호는 貞節로 홍건적의 난 때 牧隱 李穡,

陽坡 洪彥博, 靑丘堂 曹繼芳, 石灘 李存吾, 杏村 李岳 등과 함께 왕을 호종하며 공을 세워 翊衛將軍保勝中郎將이 되고 原從功臣이 되었다.

허기의 아들 許惟新은 문과급제하여 영산현감을 지냈고, 장손 許旅는 조정에서 迪順副尉司正을 지냈다. 허려는 許元弼,²⁶⁾ 許元輔, 許元質 등 세 아들을 두었는데 차남 허원보(1455-1507)가 1480년경 고성에서 의령현 嘉禮로 이거함으로써 김해허씨가 의령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허원보는 슬하에 장남 許琇(1478-1539), 차남 許瓚, 3남 許瓊, 4남 許璉, 5남 許權, 6남 許環 등 6남 2녀를 두었다. 그는 濯纓 金駟孫(1464-1498), 寒暄 金宏弼(1454-1504), 滄溪 文敬全(1457-1521)²⁷⁾ 등과 도의적인 친구였다.

허찬의 장남 許士廉은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일찍 죽었으며 차남 許允廉은 진주목사를 지냈다.

퇴계 이황은 허원보의 차남 默齋 許瓚(1481-1535)의 장녀와 결혼하여 장인으로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만사위가 되었다. 후에 장인의 묘갈명을 직접 짓기도 하였다. 퇴계 이황은 허씨부인과 1521년에 결혼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 년 후인 1527년 11월에 허씨부인과 사별하였다.

위와 같이 1533년 2월부터 두 달여 간의 행력과 의령지역과의 인연, 묵서 기록으로 볼 때 『근사록』은 남행 과정 중 의령 처가를 방문했을 때 퇴계의 첫 번째 장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묵서 표기된 ‘嘉靖十二年癸巳仲春既望 許壽翁 贈 李季浩’의 기록을 재차 살펴보자.

가정 12년 계사는 ‘1533년’, 중춘은 음력 2월이다. 사전적 용어로 ‘既望’의 경우 望月(15일)이 지나갔다는 뜻으로 매월 16일 또는 17일 정도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본 『근사록집해』는 <표 3>에서의 남행기록과 책 내의 묵서기록을 통해 1533년 2월 16일 내지는 17일에 의령 백암촌의 처가를 방문하여 장인으로부터 전해 받은 책인 것이다.

26) 장남 허원필(1452-1529)은 武科에 급제하고 통정대부, 군수 등을 거쳐 의주진병마동첨절제사 등의 관직을 지냈다.

27) 문경동은 허원보의 친구이자 허원보의 차남 許瓚의 장인이었다.

4.2 장서인

3책의 각 권수에는 모두 2종의 朱印이 상하 혹은 좌우로 찍혀져 있다. 하나는 ‘李崔’이며, 그 모양은 직사각형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특이한 형태의 다른 하나는 상단의 ‘퇴 산(山)’과 하단의 ‘법 률(律)’자를 더한 이율의 수결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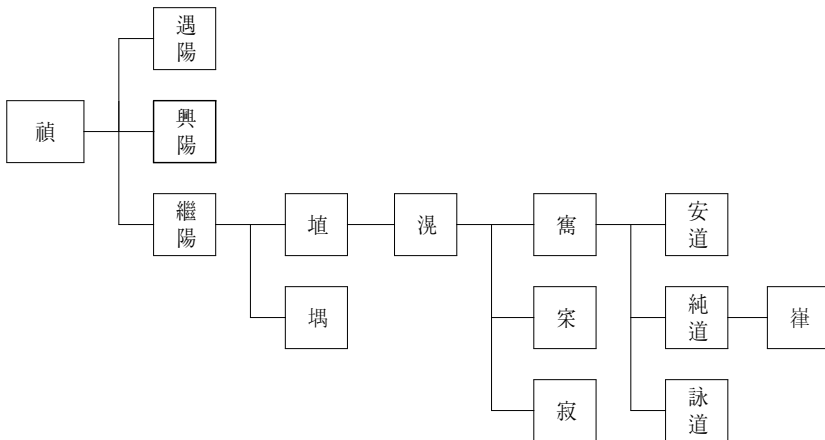
여기서 이율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자.

퇴계는 1521년 허씨부인(許瓚의 장녀)과 결혼하여 장남 李窩(1523-1583), 차남 李窠(1527-1548)을 두었다. 그러나 차남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27년 11월에 허씨부인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듬해 進士 會試에 합격하고 1530년에는 奉事 權碩의 딸과 재혼하여 삼남 李寂(1531-1608)을 두었다.

허씨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 이준은 봉화금씨 琴梓의 딸과 결혼하여 李安道(1541-1584), 李純道(1554-1584), 李詠道(1559-1637)의 세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차남 이순도와 善山金氏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李崔(1583-1615, 字 士瞻)이다.

<표 4> 李律의 직계도



이울은 태어난 지 불과 1년 만에 부친인 李純道(1554-1584)가 별세하여 숙부인 東巖 李詠道(1559-1637)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랐다. 이후 그의 일생에서 숙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1597년에는 안동에서 의병활동을 벌였던 숙부를 따라 정유재란 때 곽재우가 주둔하던 화왕산성으로 출진하기도 하였다.

1612년 30세에는 퇴계 증손자의 혜택으로 水庫別提를 제수받아 관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尙依院 別提와 別坐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1615년 1월 26일에 33세의 젊은 나이로 한양에서 천연두로 별세하였다.



<그림 5> 각 책별 권수에 찍힌 장서인 '李儼'

계암 김령(1577-1641)은 이율이 갑자기 별세한 소식을 듣고 1615년 2월 1일의 일기에 “별좌 李士瞻(李崔의 字)이 죽었다고 한다. 별좌의 본가에 알렸더니 통곡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은 퇴계선생이 남긴 후손 가운데서도 참으로 얻기 어려운 사람이었고, 집안에서의 품행도 보기 힘든 사람이었다. 동네에서도 그를 아름답게 여겼는데 지금 졸지에 이런 지경에 이르다니 애석하고 참통하다.”라고 기록하였다.²⁸⁾ 이율은 불행한 가정사와 함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해 고향에 큰 슬픔과 충격을 주었다.

4.3 기타 문헌에서의 전래 기록

4.3.1 장인 허찬의 묘갈명

장인 허찬이 사위였던 퇴계에게 『근사록』을 주었다는 기록은 앞에서의 목서 기록 외에 다른 문헌에서도 언급되었다. 響山 李晩燾(1842-1910)가 찬한 허찬의 묘갈명²⁹⁾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공의 묘갈명은 나의 선조 文純公(이황)이 지었는데 둘은 장인과 사위지간으로 직접 보고 자세히 기록하였다. (중략) 공(허찬)의 장인 滄溪 司成公(文敬公, 1457-1521)의 집은 영주 草谷에 있었는데 공은 宜春(의령)에서부터 옮겨와 젊은 시절 초곡에서 처가살이한 일이 있었다. 正德 辛巳年(1521) 나의 선조가 장가가서 또한 공에게 처가살이하였고, 공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성공(문경동)에게 얻은 전답과 소작인을 모두 나의 선조(이황)에게 주었다.

嘉靖 丁亥年(1527) 나의 선조는 부인 喪을 당하였고, 7년 뒤인 계사년(1533)에 공을 찾아뵙고 절을 올리자 공이 『근사록』 한 부를 주었는데, 책에 “嘉靖 癸巳年 仲春 既望에 許壽翁이 李某에게 주다-某는 先祖의 初字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중략) 또한 엿드려 생각하건대 임금(정조)이 東宮에 계실 때 陶山의 옛 것을 찾아오라고 명하여 이 책 또한 임금님께 올린 것 중에 있었고 직접 보기까지 했으니 그 광영이 어떠하겠는가?³⁰⁾

28) 金埰, 『溪巖日錄』(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3)은 조선 중기 안동 출신의 문신인 계암 김령(1577-1641)이 1603-1641년까지 쓴 일기이다.

29) 『響山集』 卷14, 成均進士許公墳碣銘後識.

30) “公墓碣銘 吾先祖文純公所撰也 舅甥間親見而詳記者(중략) 公之聘翁滄溪司成公之宅

위의 묘갈명에서는 『근사록집해』는 1533년 퇴계가 장인 허찬에게 선사받아 계속 전해 내려왔던 사실 외에 정조가 동궁에 있을 때 직접 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정조는 왕위를 계승하기 전부터 당대 전통과 명성이 있는 집안의 고적을 찾아 보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³¹⁾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도 정조가 열람한 것 중 하나였던 것이다.

이 외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에 대한 전래 및 관련 기록은 『弘齋全書』, 『樊巖先生集』에서의 정조 열람 기록이 있다. 특히 『陶山及門諸賢錄』, 『眞城李氏上溪派世譜』와 『嶠南誌』에서는 퇴계의 둘째 손자이자 이율의 아버지인 이순도가 퇴계에게 받았다는 새로운 기록이 있다. 『汎庵集』에서는 위의 내용과 함께 외부에 유출되었다가 다시 찾은 일화가 소개되었다.

4.3.2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홍재전서』에 수록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근사록』은 선정 퇴계가 가장 많이 공부한 것으로, 책의 위에 직접 기록한 筭疑가 있다. 일찍이 후손李世澤³²⁾을 통해서 구해 보니 종이 낡고 글자가

在榮川之草谷 公自宜春 少嘗贅居草谷 正德辛巳吾祖委禽 亦在公贅居 及公之還也、盡以所得於司城公之田民 付於吾祖 嘉靖丁亥吾祖喪 夫人粵七年癸巳 往拜公 公以近思錄一部授之 卷端有識曰 嘉靖癸巳仲春 既望許壽翁贈李某 [先祖初字] (中略) 又伏惟正考在東宮時 命考陶山古蹟 是書亦在進御之中 至被瘠覽 則其光寵爲何如.”

31) 정조는 동궁 시절과 임금의 재위시 명성있는 집안에 소장된 고서를 열람하고자 하였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승지 이익운이 고가의 문적을 찾아 보고하는 자리에서 忠定公 權穰의 집에 소장된 『근사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가 春邸에 있을 때 先正 李滉에게 『手證心經』의 袖珍本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宦僚로 있던 선정의 후손에게 구해 보았다”는 기록(朝鮮王朝實錄, 正祖 18年(1794) 8月 30日 甲申條) 등 여러 차례 열람 기록이 있다.

32)李世澤(1716-1777). 본관은 眞城, 호는 釣隱이다. 퇴계의 8대손이다. 그는 진사시에 합격한 뒤 1753년(영조 29) 정시문과에 2등으로 급제하였다. 이세택은 내직에 있으면서 퇴계의 후손으로 관심을 받았다. 실록을 보면 영조 31년(1755) 12월 14일조에 교리 이세택이 이황의 저서 『聖賢道學淵源』을 임금에게 올리니 친히 서문을 지어주셨고, 『聖學十圖』도 친히 서문을 지어 경상감사에게 간행하여 올리라고 명하였다. 또한 유신을 보내어 도산서원에

마모되어 매우 귀한 것이었다.[近思錄先正退溪最用工 紙頭有手編筭疑 嘗因
其後孫李世澤取見之 紙弊字剝見之可貴]

4.3.3 『樊巖先生集』³³⁾ 卷37 <故大司憲李世澤致祭文>

정조는 1778년(正祖 2) 퇴계의 후손이자 신하였던 鈞隱 李世澤(1716-1777)의 사후에 致祭文을 보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이 있다.

지난 날 춘궁에 있을 때, 경에게 『근사록』을 빌렸는데 선정(퇴계)의 손때가 묻은 것이오. 그때를 추억하니 마음이 측은하고, 저 멀리 도산을 바라보니 맑은 기운이 적적하리오. 예망을 시켜 경의 영악에 조문하노니, 경은 나의 잔을 흠향하소서.³⁴⁾

4.3.4 『陶山及門諸賢錄』

『도산금문제현록』은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이황과 그의 문인들에 대한 사적을 모아 엮은 책이다.

『도산금문제현록』 卷4 <李純道>條에는 『樊巖先生集』(4.3.3)과 동일한 내용 외에 퇴계의 둘째 손자 이순도가 퇴계로부터 『近思錄』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과 같다.

선생이 詩 한 편과 일찍부터 책상 위에서 평상시에 읽던 『근사록』 한 질을 주었다. 정묘무술년(1778) 퇴계의 5대손 이세택의 사제문에서 이르기를 “지난날 춘궁에 있을 때, 경에게 『근사록』을 빌렸는데 선정의 손때가 묻은 것이오....”³⁵⁾

致祭하도록 하고 이세택에게 貂帽를 내렸다. 1773년에는 퇴계의 후손으로 가자만이 대사현이 되었다.

33) 蔡濟恭(1720-1799)의 시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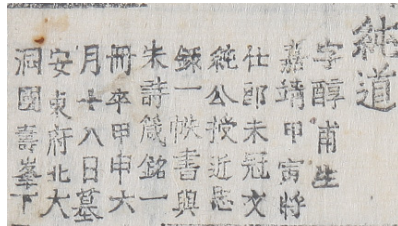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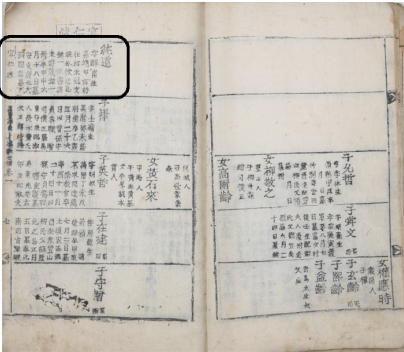
34) “(中略) 憶在春宮 借書卿橐 近思之錄 先正手澤 追念疇曩 心焉有惻 睠彼陶山 清氣寂歷 伴我禮郎 吊卿靈幄 卿之格思 詎予之酌.”

35) 卷4 <李純道>條. 字 醇甫 安道弟 生嘉靖甲寅 天資溫雅 孝友篤實 早受先生教訓 勤力不怠 先生與門人講學 必命公從之 與趙月川 金後凋 諸公讀心經于易院也 先生寄詩一律 又嘗以案上平日所讀近思錄一帙 正廟戊戌賜祭公五代孫大司憲李世澤文曰 予在春宮借書卿橐 近思之錄 先正手澤云云

4.3.5 『眞城李氏上溪派世譜』·『嶠南誌』

1913년 도산서원에서 인출한 목활자본 『眞城李氏上溪派世譜』에 수록된 각 인물 중 李純道の 부기 설명에는 “文純公이 『近思錄』 한 질과 『朱詩』와 『箴銘』 1책을 써서 주셨다”는 기록이 있어 『근사록』뿐만 아니라 『朱詩』와 『箴銘』도 함께 주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純道 字醇甫生 明宗甲寅將仕郎未冠文純公授近思錄一帙書與朱詩箴銘一冊
卒甲申六月十八日墓臥龍面西峴國壽峯下西坐



<그림 6> 『眞城李氏上溪派世譜』의 李純道 기록

또한 『嶠南誌』 예안군조의 유행편과 효자편에도 이순도가 퇴계에게 『近思錄』을 받았다는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³⁶⁾

36) 『嶠南誌』 (大邱: 李根泳房, 1940) 卷12 禮安郡條.

“儒行(李朝) - 李純道 滉孫早 擅才藝退溪每講學必命從以近思錄傳授又見孝編.”

“孝子(李朝) - 李純道 滉孫克承庭訓孝友篤至退溪每講學必命從以近思錄傳授父喪廬墓哀毀卒.”

4.3.6 『汎庵集』

『범암집』은 10권 5책으로 구성된 석인본으로 柳淵楫(1853-1933)의 시문집이다. 1958년에 발행되었다.

『범암집』에 수록된 글 중 류연즙이 찬한 新巖 李晩耆(1825-1888)의 行狀³⁷⁾에는 이 책의 우연치 않게 발견되어 되찾은 일화를 소개하였다.

“1852년 4월에 문과 급제하여 新恩遊街³⁸⁾의 행렬 중 경주지역을 지나가다 우연히 한 민가에 들어가서 『근사록』 한 부를 보게 되었다. 그 책을 살펴보니 선조인 퇴계선생의 수택본으로 퇴계가 둘째 손자(李純道)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공은 즉시 값을 지불하고 책을 찾아 중형가에 돌려주었다.”

위 행장과 같이 李晩耆(1825-1888)는 유가행렬 중 이 책을 습득하여 그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주인인 중형에게 돌려주었다. 당시 이순도의 후손은 李晩禧(1806-1871)였다.

여러 문헌상 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는 1533년에 퇴계 이황이 어득강의 초청으로 남행하였을 때 경남 의령에서 첫 번째 장인이었던 許瓚에게 전해 받아 이후 퇴계의 둘째 손자인 李純道에게 물려주었으며, 그의 아들인 李崱가 각 책의 첫 장에 장서인을 찍어 표시하여 계속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후 正祖가 동궁에 있을 때 옛 고가의 귀한 책을 직접 열람하고자 하여 퇴계의 후손으로 내직 생활을 했던 李世澤을 통해 이 책을 직접 보고 “先正의 손때가 묻은 귀한 책”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후 얼마동안 잠시 외부로 유출되었던 것을 1852년 李晩耆가 과거에 급제하여 경주에서 유가행렬을 할 때 어느 민가에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 구입하여

37) 『汎庵集』 卷8 <新巖李公行狀>.

“公諱晩耆，字德老，姓李氏，眞寶人，號曰新巖(중략) 壬子四月登第 七月例補承文院正字 嘗於恩遊之行歷入東都民舍見有近思錄一部 卽老先生手澤在而傳付於第二孫者漂轉在此也 公卽償價覓取，還奉于從兄家。”

38) 조선 시대 과거급제자들을 영예롭게 하기 위한 축하 거리 행진으로 주로 3일 동안 치루어졌다. 당시 이만기는 壬子(1852) 式年試에 丙科 13위에 합격하였다.

원래의 소장자인 이만희가에 돌려주었다.

한 때 외부에 유출되어 사라질 위기도 있었으나 퇴계의 손때가 묻은 책의 가치를 깨달은 후손이 다시 찾아와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범암집』 수록 『근사록』 기록

5. 가치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사록집해』는 고려 말 신유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원나라와 교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되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유학자들의 필독서로 많은 판본이 간행되었다.

본 『근사록집해』는 이인민이 평소 이 책을 구해보고 싶던 중 1370년에 진주목사로 부임하여 司藝 朴尙衷의 요청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의 저본은 원판이며 원판을 복각하여 간행하였다. 현재 전하는 『근사록집해』 중 가장 빠른 시기의 판본이며, 14세기 원나라 판본의 형태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매우 희귀하고 귀중한 판본이다.

같은 판본으로 총재유물관 소장본(14권 4책, 보물 제262호), 숙명여대 소장본(영본 2책, 보물 제1077호)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는 비록 여말선초에 후인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결락이나 훼손된 상태가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로 잘 전해지고 있다.

둘째, 본서는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퇴계 이황의 수택본으로 퇴계가 평상시에 지니며 항상 공부하던 책이었다. 책의 내부에는 퇴계와 그의 후손이 주를 달면서 공부한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이 책을 퇴계가 장인으로부터 받아 손자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

제1책의 후표지의 裏面에는 ‘嘉靖十二年癸巳仲春既望 許壽翁 贈 李季浩’라는 受贈記가 목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1533년에 허찬이 사위인 퇴계 이황에게 이 책을 주면서 적은 기록으로, 전래 과정의 기록 중 첫 번째의 것이다.

퇴계 이황은 1533년에 남행을 할 때 처가인 의령 백암촌을 방문하여 첫 번째 장인이었던 허찬에게 이 책을 받아 퇴계의 둘째 손자인 이순도에게 물려주었고, 그의 아들인 이율이 각 책의 첫 장에 장서인을 찍어 표시하여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또한 정조가 동궁 시절에 퇴계의 후손인 이세택을 통하여 직접 열람한 것이다. 정조는 고가의 오래된 유물을 찾던 중 이 책의 열람을 원했고 신하이자 퇴계의 후손인 이세택을 통하여 이 책을 얻어서 직접 보고 “先正의 손때가 묻은 귀한 책”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여러 문헌에 전해진다.

이처럼 본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는 원과의 교류를 통한 우리나라에 전래된 고려 초기 문헌의 수입 양상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나라 판본을 복각한 것으로 원판본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귀중한 자료이다.

아울러 본서에 수록된 퇴계의 장인 허찬의 受贈記, 이순도의 아들인 이율의

장서인 외에 퇴계가 그의 둘째 손자 이순도에게 전수한 점, 동궁시절 정조가 열람한 점, 조선말 외부로 유출된 뒤 본가로 반환된 사실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점 등은 판본학적 가치 이상으로 그 가치가 크다.

6. 결 언

『근사록』은 宋 朱熹와 呂祖謙이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의 어록 중에서 주요 부분을 골라 1175년에 편찬한 성리학의 해설서이다. 『근사록』의 편찬 이후 중국에서는 많은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특히 1248년에 섭체가 편찬한 『근사록집해』는 『근사록』의 주석서 중 가장 완전한 주석서로 평가되어 성리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근사록』의 판본은 거의 『근사록집해』였으며 조선 후기까지 유학자들의 필독서로 많은 판본이 간행되어 널리 보급·유통되었다.

본고에서는 전해지는 여러 판본 중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의 서지적 특징과 전래 과정, 그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판본은 현전 『근사록집해』 판본 중 가장 빠른 시기의 것으로 1370년에 전주에서 간행되었다. 고려 말기 원나라와의 교류를 통한 신유학이 들어올 때 수입·전래되어 고려에서는 원판을 복각하였기 때문에 원판의 형태적인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같은 판본으로 충청유물관 소장본(14권 4책, 보물 제262호), 숙명여대 소장본(영본 2책, 보물 제1077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서울대 규장각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영남대 동빈문고본이 전해진다. 본 『근사록집해』는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아주 좋은 편이다.

둘째, 조선시대 대학자인 퇴계 이황(1501-1700)이 지니면서 애독한 수택본으로 책의 전래에 대한 기록이 책 내에 표기되어 있다. 또한 퇴계의 수택본이라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로 인해 문집이나 지리지 등 여러 문헌에서 이를 언급한 기록이 있다.

셋째, 이 책은 퇴계가 장인으로로부터 받아 손자에게 물려주어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와 가치가 크다. 여러 기록에 의해 확인된 전래과정은 1533년 퇴계 이황의 첫 번째 장인이었던 허찬에게 전해 받아 이후 아들 이준의 차남이자 손자인 이순도에게 물려주었고, 이순도의 아들인 이윤은 각 책의 첫 장마다 장서인을 찍어 표시하였다. 그 후 19세기 중엽에 잠시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퇴계의 후손이 우연하게 발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넷째, 특히 전래되던 사이 정조는 동궁에 있을 때 고가의 오래된 유물을 찾던 중 이 책의 존재를 알고 열람을 원하였고 퇴계의 후손으로 내직을 지냈던 이세택을 통하여 이 책을 구해서 직접 열람하고는 “先正의 손때가 묻은 귀한 책”이라고 표현한 기록이 여러 문헌에 전해진다.

이와 같이 1370년 진주에서 간행된 퇴계 수택본 『근사록집해』는 허찬이 사위인 퇴계에게 주었고, 퇴계는 둘째 손자인 이순도에게 주어 그 후손이 소중하게 보관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 사이 정조가 직접 열람하였으며, 외부로 유출되어 분실할 뻔한 위기도 있었으나 이후 후손가에서 가보로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본 『근사록집해』에 대한 학술적인 면에서의 가치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퇴계 이황이 소장하여 후손들에 의해 대대로 전해 내려온다는 점, 전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타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기록이 전해진다는 점은 더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弘齋全書』 卷161 <日得錄>.

『退溪先生年譜』.

『陶山全書』.

『響山集』.

『樊巖先生集』.

『汎庵集』.

『眞城李氏上溪派世譜』.

『嶠南誌』 (大邱: 李根泳房, 1940).

『溪巖日錄』 (安東: 韓國國學振興院, 2013).

강순애. “초주갑인자본 『근사록』과 관련 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24집(2002).
한국서지학회.

권오봉. “癸巳南行錄이 갖는 퇴계의 평생사적 의의.” 『퇴계학연구』 제5집(1991).

권오봉. “퇴계선생의 일기 총록, 1: 手稿 『壬寅·癸卯·甲辰日記』의 영인공개에
부처.” 『퇴계학논집』 제78집(1993).

육영정. “동빈문고의 중국번각본과 그 가치 - 『近思錄』과 『韻府群玉』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2012).

우정훈, 송일기. “葉採의 『近思錄』集解本 板本考.” 『서지학보』 제36집(2010).

조유영. “『南行錄』 소재 퇴계 기행시의 특징과 의미.” 『동방학』 제32집(2015).